

협회 소식

신훈 회장, 매경 '제11회 살기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참석 시상 종합대상 코오롱건설 '코오롱 하늘채'

대상 현대산업개발 '덕소 I' PARK' 수상 영예



신훈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1회 살기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 참석해 주상복합아파트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대우건설 '대우트림 프월드마린(부산 해운대구 우1동)' 과 성원건설 '동작 성원상떼빌(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을 시상했다. 이용

석 건설교통부장관과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을 비롯한 주택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는 코오롱건설의 '코오롱 하늘채(대전 동구 대성동)' 가 영예의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현대산업개발 남양주 덕소 I' PARK' 는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삼성물산 성남 래미안 금광(대형업체 부문), 동일토건 용인 동백 동일하이빌(중견업체 부문), 현대건설 목동 하이페리온 II(주상복합 아파트 부문), SH공사 마장 SH-Ville(임대 아파트 부문)은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살기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는 매년 매일경제신문사, 우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토지공사가 주최하는 행사로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 임대 아파트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다.

<제11회 살기좋은 아파트상 수상작>

구분	업체명	단지명		
종합대상	코오롱건설(주)	대전 가오지구 코오롱하늘채		
대상	현대산업개발(주)	덕소 I' PARK		
일반아파트	대형업체	최우수상	삼성물산(주)	래미안 금광
		우수상	동부건설(주)	덕소 동부센트레빌
			(주)한화건설	동탄 신도시 한화꿈에그린
			쌍용건설(주)	사직동 쌍용 예가
			(주)현진	광주 양산지구 현진에버빌
	중견업체	최우수상	(주)동원토건	용인 동백 동일하이빌
		우수상	(주)동원개발	죽현마을 동원로얄듀크
			(주)한라	칠곡 한라하우젠트
			(주)동일하이빌	김포 신곡 동일하이빌
			(주)우남건설	동탄신도시 우남퍼스트빌
주상복합아파트	최우수상	현대건설(주)	목동하이페리온 II	
	우수상	성원건설(주)	동작 성원상떼빌	
		(주)대우건설	대우트림프월드마린	
임대아파트	최우수상	SH공사	마장 SH-Ville	
	우수상	(주)제일건설	소룡동 제이파크	
		대해주택공사	용인보라7블록	

이사회 개최



협회는 지난 7월 18일 용인시 양지면 아시안컨트리클럽에서 신훈 회장을 비롯한곽정환부회장, 윤오수 상근부회장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제 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 사용이 의무화(계량에 관한 법률 제7862호)됨

에 따라 회비 부과단위 및 이에 따른 부과액을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회비규정 개정안을 부의하여 통상회비 부과단위를 '평' 단위에서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 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부과액은 분양주택은 제곱미터당 92원 이내, 그 외 주택사업은 제곱미터당 62원 이내로 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주택사업은 그 부과기준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일,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을 기준으로 부과토록 원안대로 의결했다.

운영홍보위원회 회의 개최



협회는 지난 7월 10일 서울 논현동 협회 회의실에서 봉희룡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홍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홍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지난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임대주택법을 보고했고, 주요 업무로 △최저생계위원회 대표발의한 학교 시설을 공공 시설에 포함하는 국토계획법에 대해 현행제도를 유지 △주상복합건축물 개발사업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 해당되므로 입법취지에 맞게 부동산개발업 등록 예외로 인정 △주택성능등급 인정 결과와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 등 주택성능 향상에 의한 가산비용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경우 점수에 관계 없이 1%를 가산비용으로 적용하고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기준을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공급한 자료 개선 등을 건의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운영홍보위원들은 학교 시설 관련 국토계획법 개정과 기본형 건축비 산정기준 마련 및 주택성능등급제도 가산비용 적용에 대해 회원사, 대한주택건설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회비규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에 따른 회비부과기준 개정안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개선키로 했다.

알림



우리건설(대표이사 부회장 심영섭)이 7월 9일자로 협회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윤오수 상근부회장은 지난 9일 협회 부회장실에서 우리 건설에 회원증을 전달하고 환담했다. 이로써 우리협회 회원사는 78개로 늘었다. 한편, 협회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자본금이 100억 원 이상이고 최근 2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500세대 이상인 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대림산업, 행어구조 건축물, 국내 첫선



대림산업(사장 김종인)이 공중으로 건물이 떠오르는 듯한 행어(Hanger)구조 건축물을 국내에 첫선을 보여 화제다. 고층 건물의 미관을 중시하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미국 시카고 등지에서 행어구조 건축물은 가끔 눈에 띄지만 국내에서 10층 이상 건축물로서 행어구조로 건축된 경우는 대림산업의 대구 주공사옥이 처음이다. 대구 주공사옥은 지상 13층, 지하 2층 규모의 행어구조로 설계되어 마치 건물 전체가 공중부양하고 있는 모습이다. 행어구조란 교량의 강교를 교각에 걸쳐 놓거나 건축물의 기둥을 지붕에 매다는 형태의 시공법. 대부분의 지상구조물은 하중이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지만, 이 행어구조물은 반대로 하중이 들어 올려지는 형태다. 대구 주공사옥은 지상 13층 높이까지 중앙골조(Core)를 세운 후, 최상단의 지붕틀(Truss)에 각각의 건물기둥들을 걸어 놓는 방식으로 시공된다. 쉽게 말해서, 어른의 양팔에 애들이 매달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상단 몸체는 거대하고 하부 중앙골조는 가늘어서 마치 건물을 거꾸로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다. 행어구조에 적용을 받는 부분은 지상 6~13층까지이며, 지상 4~5층은 단순 중앙골조 부분으로 넓은 옥외 휴게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상 3층까지는 행어구조와는 상관없이 'L'자 모양으로 시공, 직원복지 시설 및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행사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대우건설, '푸르지오 사이버 체험관' 오픈

대우건설(사장 박창배)이 가상 견본주택을 통합한 '푸르지오 사이버 체험관'을 선보인다. 대우건설은 고품격 친환경 아파트 브랜드인 푸르지오의 홈페이지(<http://www.prugio.com>)에 국내 최초로 가상 견본주택을 통합, 갤러리 형태로 구성된 '푸르지오 사이버 체험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이버 체험관에는 현재 분양중이거나 분양 예정인 푸르지오의 실제 견본주택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촬영해 제작한 가상 견본주택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푸르지오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가상 공간에서 견본주택 내부와 인테리어, 마감재 등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특화공부방 설계



현대건설(사장 이종수)이 힐스테이트 출시 이후 고객들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들의 학습 의욕 고취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똑똑한 공부방'을 공급한다. 현대건설은 최근 대구 월배힐스테이트 중간오피스 행사에 맞춰 108㎡ 176세대에서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힐스테이트 첨단 학습조명'은 수리영역과 같이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환경에서는 쾌적하고 밝은 조명을 사용하고, 언어영역·휴식영역·취침영역 등 공부환경에 따라 변화된 조명을 제공해 자녀들의 집중력 향상에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시력보호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일반아파트 방문이 내부가 비어 소음차단 효과가 떨어

어졌던 것에 반해 속이 꽉 찬 2중 소음차단 기능을 갖춘 '기능성 방음문'을 도입해 소음차단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열교환 환기시스템'을 도입해 실내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외부의 먼지, 유해물질 등을 걸러내 항상 쾌적한 공부방을 조성, 자녀들의 창의력 발달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단일 상품 중심으로 공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명, 온도, 환기, 소음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자녀방을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론칭 이후 고객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상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자녀들의 학습환경을 높일 수 있는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 이번 '똑똑한 공부방'을 제공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진, 분당 신사옥 '에버빌타워'로 이전

현진그룹(회장 전상표)은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에 신축한 '에버빌타워'로 사옥을 이전한다. 에버빌타워는 연면적 9236㎡의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전층을 현진 임직원이 사용하게 된다. 기존 안양 사옥은 지난 2003년도에 설립한 백우현진복지재단(자본금 120억 원)에 출연되어 있어 사옥 이전 후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복지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백우현진복지재단은 평창동계올림픽 후원금 7억 원 지원 및 매년 평균 10억 원씩 소년소녀 가장돕기에 사용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진 관계자는 "올해 두바이, 상해(곤산) 등지의 해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현될 뿐만 아니라 리조트사업도 착공에 들어가는 만큼 임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은 쾌적하고 편리한 사무 공간 형성을 위하여 에버빌타워를 신축하여 이전하게 됐다"고 밝히며 "사옥 이전에 발 맞춰 CI 개편과 사가 제작, 홈페이지 주소(www.hyunjn.co.kr)도 새롭게 변경했다"고 말했다.



화성산업, 아파트 현장웬스 로드갤러리로 변신



화성산업(사장 이홍중)은 아파트 공사장 현장 안전펜스를 미술작품 등으로 꾸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업체는 최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짓고 있는 '화성파크 더 스타' 현장에 지역 출신의 대표적 원로 작가 중 1명인 신석필 화백의 작품 5점을 내다 걸었다. 화성산업은 또 경북 경산에 있는 모델하우스에는 오는 31일까지 조각작품전을, 경남 양산과 경북 구미, 대구 황금동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는 다음 달 말까지 해양 관련 사진을 전시하는 해양사진전을 각각 열 계획이다. 앞서 화성산업은 이달 초 범어동 화성파크 더 스타 모델하우스에서 프로골퍼 초청 골프 레슨과 금융전문가의 재테크 강의를 하기도 했다. 또 와인 전문가와 함께하는 와인 강의와 시음회, 진학지도 전문가를 초청한 자녀교육법 강연, 네일아트 서비스 등도 함께 열어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단순히 분양계약만 하는 모델하우스와 위험하게 보이는 공사 현장보다는 다양한 문화행사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면 고객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